



# 국내 고병원성 A 지속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



지난 5월 29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본관 중회의실에서 ‘국내 고병원성 A 지속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2015 한국기금학회 춘계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1부에서 서울대학교 한재용 교수 그리고 2부에서 모인필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고 각 주제에 맞는 연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날 나온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한국기금학회 손시환 회장(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최근 HPAI 발생 주요 역학사항 및 방역상 시사점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AI 바이러스는 역학추적 결과 몽골,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바이러스와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유럽이나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AI는 철새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AI는 H5N8 바이러스가 3건, H5N2 바이러스가 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14.9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15.05.23) 총 18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농장에서 발생한 AI의 역학 조사 결과 철새 및 야생조류에서 28%, 축주 및 관계자로부터 27%, 차량 방문에서 27%, 가축이동 7%, 인근전파 7%, 계열관리 2%, 남은 음식물 1%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AI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신고와 차단방역입니다.



김용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 양계업계 AI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국내에서 AI는 '03~'04년에 19개 농가, '06~'07년에 6개 농가, '08년에 27개 농가, '10~'11년에 51개 농가 '14~'15년까지 총 다섯 번의 발생으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I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까지 발생한 AI 바이러스의 유형을 면밀하게 분석해 사전대책과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사례분석과 외국사례분석 그리고 국제문제점까지 모두 파악해 예측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를 다양화한 사전 예측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 학계, 업계, 소비자가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산업보존을 위한 대책으로 차단방역의 매뉴얼 강화,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유도, 산업 현실에 맞는 정책수립, 인센티브 강화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흥재  
본회 부회장

## 오리업계 AI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오리농장에서 AI 발생이 다발하면서 농장에서 AI 전파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철새, 새끼오리 분양박스, 플라스틱 종란난좌, 왕겨보충, 어리차량, 상치반, 분변 등의 경로를 통해 다양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AI 발생을 막기 위해 오리농장에서 취약한 사육시설 개선은 물론 사육시스템과 방역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가는 차단방역시스템과 사육시스템, 농장관리시스템을 기본으로 지키고 계열업체는 농가관리시스템과 중오리·부화·도입 관리시스템을 지키고 정부와 전문가는 교육 및 홍보와 정책방향을 수립해 안정적인 오리 생산기반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강현  
한국오리협회 전무



### AI 지속발생에 따른 산업의 역할



문 정 진  
한국토종닭협회 부회장

최근 전통시장의 토종닭에서도 AI가 발생하면서 유통상인으로 국한되어 있는 가축거래상인을 전통시장 판매 상인까지 등록 확대가 요구됩니다. 정부-지자체-협회와 합동 점검으로 지속적인 차단방역 관리를 실시하면서 특히 가축거래상인 미등록, GPS 미부착, 소독 미실시 등 질병전파위험도가 높은 종사자에게 벌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해 산업의 피해를 막아야 하며 신속한 정보 공유로 확산을 막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학계-산업계 모두 절치부심하여 향후 AI 발생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AI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수의사 관점)



송 치 용  
가금수의사회 회장

AI 방역정책은 신속한 살처분이 이루어진 반면, 현장에서 즉시 실행되기 어려운 출하증명서 발급이나 재입식 시험, 각 정책의 점검과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던 점, 방역 사각지대가 방치된 점 등 AI 방역정책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AI 방역정책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살처분 비용을 농가가 일부 부담, 중추 육성 농장과 가든 유통 토종닭 등 살처분 방역대 설정의 전략적 운용이 필요하며, 살처분 과정의 점검과 결과 평가가 이뤄져 감염원의 부실한 관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AI 업무와 관련해 예산, 인사 등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상설 중앙 방역대책본부가 필요합니다. 방역전문인력의 소집·양성·훈련은 물론 재입식 농가 심사 및 지도, 출하 증명서 발급 인력 지도 및 훈련 등의 역할 수행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베트남 AI 발생 및 대응현황



Viet Khong Nguyen  
베트남 수의과학연구소 박사

베트남은 '04년부터 현재까지 총 3,171건의 AI가 발생했습니다. H5N1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 경우가 나타나면서 H5N1 바이러스 백신을 도입해 최대한의 발생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I 전파 원인 중 하나는 닭과의 접촉이 쉽게 일어나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베트남 수의과학연구소에서는 백신을 통해 효과적으로 AI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후 한국과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연구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